



한국전력 서울전력구

# 김용환 처장

기술자로서 최고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나에게 자기 개발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

글/사진 • Willy기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용가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선로 및 전력구 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시설이 건설될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장 울타리부터 공사 소음, 진동, 분진예방을 위해 건설공해 방지시설을 해당 공사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 점부터 밝히는 김 처장은 송파지역 전력구 공사때는 인근 아파트 5500세대 전체에 편지를 보내 전력구공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변화와 도전으로 최고의 전력구 건설’ 김용환 처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구건설처의 목표이다. 김용환 처장은 실력있는 직원들이 그 꿈과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다. “전력구건설 사업은 한국전력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적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니나 전력구 건설의 해외진출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용환 처장은 전력구 건설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밝히고 해외사업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용환 처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설물 탐사 선진기술 도입.’ “서울전력구건설처에서 시행하는 전력구 공사는 주로 도심지 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도심지 지하에는 각종 매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매설물의 손상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탐사와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매설물 탐사 선진기술을 도입하기위해 해외 우수업체를 벤치마킹해 국내 전력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처장은 이러한 사업을 위해 지난해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도전해 합격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서울전력구건설처의 공사현장은 서울 등 전국 8개 시·

지난 10월21일 송파전력구 현장을 방문한 한경보 회장과 김용환 처장





성실시공을 다짐하고 있는 김용환 처장을 비롯한 한국전력 서울전력구 및 대우건설 관계자들.

도에 산재되어 있어 공사관리 여건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원거리 현장까지 공사관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 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전력구건설의 미래는 최신기술 개발에 달려있어

최신 건설기술을 도입해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 건설사가 건설시장에서 도태하듯 전력구 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전력구건설처는 터키공사 등을 발주해 신기술 개발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Pull-Back Semi-Shield, Shield TBM 압송버력시스템, 조립식 수직구 시공 등 다양한 신공법을 도입해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공기단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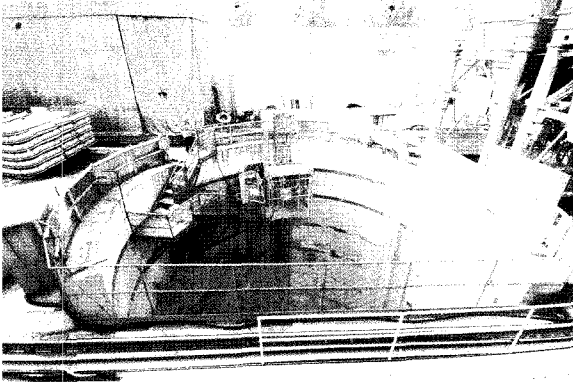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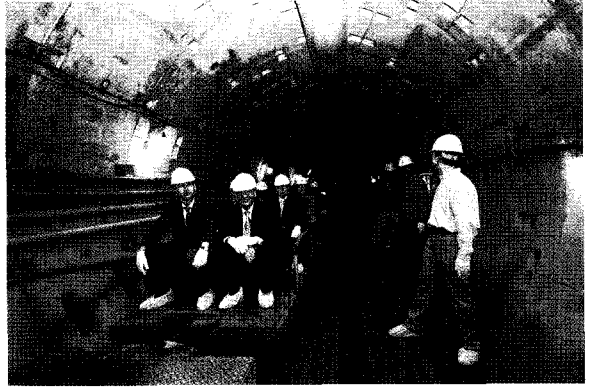
서울전력구건설은 감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Best 품질인, Best 품질업체 선정, 사내 5개 품질개선팀을 상시 운영해 고품질 전력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원

거리 현장에 대해서는 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안전 및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Cable Hoop 개발, 작업올타리에 친환경그래픽 적용, 폐수처리 시설 설치 등으로 민원예방 및 공사 적기준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도와 규정 정립으로 신바람나는 일터 조성

김 처장은 전력구 건설에 있어서 제도와 규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풍토를 조성해 아침 출근 길이 상쾌하도록 직원들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효율적으로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 절차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잘 따라주고 있어 현재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얼마 후엔 정말 신바람 나는 일터, 웃음이 함께하는 직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송파전력구 현장을 방문한 우리협회 회장단은 김용환 처장과 2시간여 각종시설을 둘러보았다.

김 처장은 '고품질 전력구는 작업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신념하에 협력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반기별로 협력업체, 전문건설업체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가 끝난 후에는 건설유공자 포상 및 관계자 격려행사를 하고 후속 사업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결과 김처장은 작년 청렴도 1위, 잠정 내부평가에서 건설처군 1위를 달성했는데 그 소감으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품질 전력구 건설을 위해 묵묵히 일해준 직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오늘도 최고의 전력구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김용환 처장을 비롯한 한국전력 임직원 모두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